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거부'의 정신

《서승의 옥중 19년》 펴낸 서승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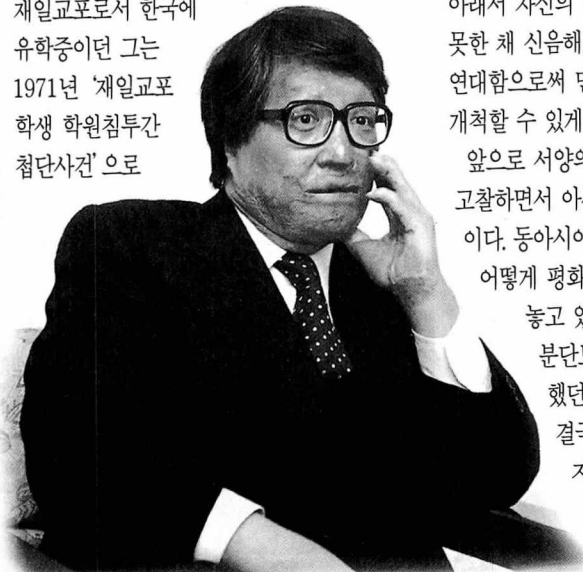


당신은 혹시 길이 여덟 자, 너비 너 자 크기의 관 속에 들어가 누워본 적이 있는가? 관의 크기는 0.9평. 시체를 넣는 관이 아니다. 독재정권 아래서 수천·수만의 양심수들이 신음해야 했던 형무소 독방의 모습이다. 그 독방에서 2929일(19년)을 '깨고'(살고) 나온 이가 있다. "원자폭탄으로 타들어간 들판처럼 타 문드러진 얼굴"로 한국인권의 상징이 되었던 서승씨(54)가 바로 그다.

지난 90년 비전향 장기수로 석방된 그가 94년 일본의 고단샤 출판사에서 펴낸 《옥중 19년—한국 정치범의 투쟁》이 5년만에 《서승의 옥중 19년》(김경자 옮김, 역사비평사)으로 번역돼 나왔다. 지난달 23일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이를 뒤인 25일에 우용각씨 등 비전향장기수 17명이 석방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기묘하게도 장기수가 석방되던 날은 이 책이 한국에서 출간된 날짜와 하루 차이가 났다.

"한국의 정치범과 비전향 장기수 석방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쓴 이 책의 목적이 무산돼버린 느낌입니다. 이 책이 소용없어질 때를 기다렸으나 막상 그것이 이뤄졌을 때 한국에서 출간돼 기분이 묘합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처참한 옥중기록이자 한국 인권운동사의 육성증언이다. 재일교포로서 한국에 유학중이던 그는 1971년 '재일교포 학생 학원침투단'으로



연행돼 고문을 견디다 못해 온몸에 경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19년 동안 복역하면서 집요한 전향공작을 끝내 거부하고 마침내 90년 2월 석방됐다. 그는 출옥 직후 "19년간의 옥중생활은 사상전향제도와와의 싸움이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제도는 존속한 채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석방시켰기 때문에 실정법의 논리구조가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이번에 석방되는 장기수들과 자신을 '낭만적 망명자'로 명명한다. 꽃피는 봄을 꿈꾸며 스스로 택한 겨울을 참고 견뎠기 때문이다. 그가 끝내 사상전향제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며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세월, 국가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끝내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감옥을 증오하지만 거기에 간혀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의 투쟁을 존경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투쟁은 어떤 세상에 서도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묶인 인간이 자유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부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소 후 그는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민중연대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 아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신음해왔던 동아시아 민중이 연대함으로써 민중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서양의 인권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아시아적 인권론을 정리할 생각이다. 동아시아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지 의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식민지 지배체제와 분단모순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했던 그가 앞으로 펼쳐갈 운동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거부의 정신일 것이다.

— 박천홍 기자

자기와 타자를 이어주는 사랑

《꽃의 기억》 펴낸 김인숙씨



이상한 일이다. 가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내 기억의 저편으로 유쾌시켜버린 상처들을 다시 보는 일이 있다. 기시감도, 신비경험도 아니다.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은 어느 저녁 무렵, 너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김인숙씨(36)의 새 장편 《꽃의 기억》(문학동네)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단독자로서 개인들이 삶이라는 미로 속에서 서로를 찾아 떠도는 가혹한 풍경을 그린다. 상처를 이기게 해주던 젊은 시절의 욕망도 이제 원경으로 물러서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몇 사람의 초상이 굵은 주름으로 그려진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 누구나 자기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죠. 박경진이 자신의 안팎을 바라본 방식도 그랬죠. 그러나 자기와 타자를 이어주는 관계, 혹은 사랑이라는 다리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화자인 박경진과 그녀의 아파트에서 잠시 머물다간 신지우 사이의 미묘한 감정변화를 다룬다. 박경진은 일곱 살짜리 딸이 들은 이혼녀로 화랑에서 큐레이터로 일한다.

이중적인 남편과의 결혼생활로 상처입은 그녀는 다시는 스스로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박경진이 신지우를 통해 상처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 소설에 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요?' 라는 첫 문장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요?' 라는 마지막 문장 사이에 있다. 그 '무슨 일' 이전의 시절은 아마도 제목에 찍혀진 '꽃'으로 상징될 듯.

"제목의 '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죠. 한때 가졌던 희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죠. 버릴 수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어떤 정수.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남아 있어 미래의 어느때인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예요."

김인숙씨는 스무살이 되던 해

《상실의 계절》로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소설집 《함께 걷는 길》 《칼날과 사랑》, 장편소설 《그늘, 깊은 곳》 《먼 길》 《시디니, 그 푸른 바다에 서다》 등 장편소설 8권과 소설집 3권을 낸 바 있다. 그간의 작품에서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김인숙씨의 일관된 화두였다.

"물론 80년대에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별적 관계의 붕괴와 소외를 다룬 셈이죠.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사랑이라는 것, 개별적 자아간의 관계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 소설을 쓸 때엔 문학이 대단한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소설은 그저 남들도 다 잘 아는 얘기를 좀더 나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의 기억》의 박경진은 신지우를 통해 욕망과 미망의 굴레를 떨치고 존재의 바다까지 가라앉은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 그 정체성은 모두들 상처입은 사람이며 안팎으로 나뉘어 시대를 부유하는 존재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사랑이 종착지가 아닌 사랑이야기. 이 소설의 외연이 한없이 넓은 까닭은 그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



쓰임새 중심의 우리말 사전

《우리 토박이말 3000》 펴낸 이근술씨



토박이말(표준어에 국한하지 않는 순수 우리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국어학자 최현배씨는 16만4천여 어휘를 담은 《큰사전》을 펴낼 때, 토박이말을 5%가량 수용했다. 그러나 40만 어휘를 담은 지금의 《국어사전》은 토박이말을 고작 20% 가량 수록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조차 토박이말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후학들은 배울 회조차 박탈당하고, 또한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수록한 문학작품도 나오기 힘든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곧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에서 기획실장까지 지낸 이근술(56, 토담출판사 대표)씨를 토박이말 찾기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출판사를 차려 소설 몇 편을 펴내는데, 지금 통용되고 있는 국어사전에는 토박이말의 절대 다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풍부한 우리말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전의 기본 개념을 바꾸기로 작정한 그는 93년부터 이문구·홍명희·채만식·황석영씨 등의 8백여 문학작품을 분석해 토박이말을 발췌하기 시작했다. 《우리 토박이말 3000》은



95년에 펴낸 《사전에 없는 토박이말 2400》(최기호 엮음)과 97년에 펴낸 《채만식 어휘사전》(임무출 엮음)을 잇는 성과물. 하지만 이들은 오는 여름에 펴낼 《토박이말 쓰임사전》의 축약본에 불과하다. 그는 6만여 예문과 기존 사전에 없는 4만3천여 어휘를 수록할 《토박이말 쓰임사전》을 굵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담은 어휘사전의 결정본으로 여긴다. 그를 곁에서 도와준 사람은 16년째 월간 《샘터》에 《당신은 우리말을 얼마나 아십니까》를 연재하고 있는 상명대 국어교육과 최기호 교수. ‘흔글’ 프로그램 또한 일등공신이다.

“토박이말은 찾기도 힘들지만, 발췌한 어휘를 검토하는 일 또한 곤혹스럽습니다. 기존 사전은 토박이말의 60% 정도만 풀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새롭게 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박이말은 풍부한 감정표현으로 말하는 사람의 정서까지 전한다. 이런 어휘를 사전으로 담기 위해서는 ‘용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토박이말 3000》(토담)은 용례를 통한 적절한 쓰임새를 보여줌으로써 어휘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용례를 통한 쓰임새를 이해할 때, 뜻갈래까지 구분한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다.

“외국의 이름 있는 사전들은 용례의 풍부함으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쓰임새 중심의 사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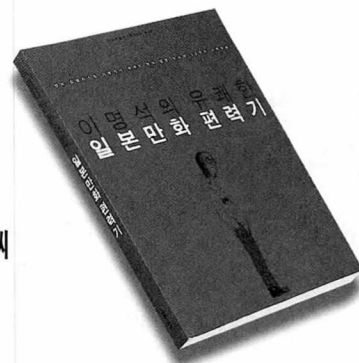
보존되고, 더욱 풍부한 언어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출판계로 뛰어들어 우리말 살리기에 나선 그는 앞으로 이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한다. 그가 편찬하고, 앞으로 편찬할 토박이말 사전은 우리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보고가 될 것이다.

— 오완진 기자

만화의 미학 드러낸 일본만화 50편

《이명석의 유쾌한 일본만화 편력기》 펴낸 이명석씨



만화를 둘러싼 ‘저질’과 ‘유해’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화에 대해 말하려면 얼마간의 구설수를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일본만화라면 ‘매국노’쯤의 폭언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일본만화 편력기》(홍디자인)를 ‘버젓이’ 내놓은 이명석씨(30, 만화 칼럼니스트)는 쓸데없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고 말한다.

“한번에 수백만권을 발행하는 잡지가 있고, 한해 20억권 이상의 만화를 찍어내는 일본 만화시장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만화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유해 여부를 말하기 전에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부터 되묻자는 것이다. 가치판단만 있었지, 우리에게 만화는 문화가 아니었다. 이 책에서는 이제까지 편향됐던 일본 만화의 전체적인 폭을 보여주고, 내용·소재·주제·내용·형식 등이 다양한 50편의 출판 만화를 뽑아 보여준다.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50선이 아닌, 50가지 색깔의 무지개다.

“아주 뛰어난거나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작가의 연출력과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뛰어난 스토리와 성실한 묘사로 소녀 만화의 전형이 된 《캔디캔디》, 우리 내면의 윤리적 패배가 가져오는 극단적 공포를 그려낸 《해피 피플》, 만화의 심심한 맛 《보노보노》, 상식적인 이야기의 통념을 깬 《먼 곳으로 가고파》 등이 사랑·삶·즐거움·웃음·싸움·모험·역사·환상 등의 주제 아래 소개됐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만화는 그들에게 삶의 기반이었죠. 패전이 가져온 정신적인 황폐, 몰자부족 등의 실제적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주었거든요.”

또 검열이 거의 없는 일본 문화풍토에서 만화가 누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상력을 끌어냈고, 문화적 태도와 감수성이 비슷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감과 열광을 얻었다. 일본 만화 고유의 미학을 보여주는 이 책은 그가 운영하는 만화 문화 인터넷 사이트 ‘마나마나’ (<http://www.manamana.kr.net>)에 올렸던 글들을 다듬어 펴낸 것이다.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곳은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책은 아직까지 대중화된 매체니까 앞으로도 여러가지 주제로 ‘만화(에 관한)책’을 펴낼 생각입니다.”

이미 웹진 <스폰지>의 편집장으로 인터넷과 친숙한 이명석씨는 지금은 압구정동에 들어설 책·영화·만화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인터넷쇼핑몰 <트브>에서 문화·예술전문서점을 맡고 있다. 그의 이력도 다채롭다. 인터넷을 삶의 공간으로 삼은 사람답지 않게 출판사에서 문학 담당으로, 또 월간지의 기자로 글과 종이와 친하게 지냈다.

“만화는 출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3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만화만큼 종이환경과 딱 맞는 것도 없으니까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만화는 영원하다.

— 이현주 기자

